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유니폼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 영화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차지현¹ · 권미정² · 양삼석^{3*}¹패션 프리랜서²부산대학교 의류학과³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A Study on the Image Expressed in Movies of Wes Anderson : Focused on <Moonrise Kingdom>, <The Grand Budapest Hotel>

Jihyun Cha¹ · Mijeong Kwon² · Samseok Ryang^{3*}¹Fashion Freelancer²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³Dept.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요 약]

이데올로기들은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표출된다. 그 중 하나가 의상이다. 본 연구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 작품 속 의상에 표출된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과 이미지의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논자는 2010년 이후에 제작된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 중 <문라이즈 킹덤>(201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의 두 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니폼과 이데올로기 양자간의 인과성과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영화에 등장한 유니폼은 인물들의 직업이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나아가 소속감, 독립성, 권위, 사명감, 정체성과 동일체성, 자부심 등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중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치는 소속감, 독립성과 권위, 사명감 등이다.

[Abstract]

Ideologies are expressed by the various elements that make up the film. One of them is cost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features and images of uniforms displayed on the costumes in Wes Anderson's films. To this end, the authors selected two pieces of Wes Anderson's work, 'Moonrise Kingdom' (2012) and 'Grand Budapest Hotel' (2014), which were produced after 2010.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causality between the two and the symbolic meaning of it. The uniforms that appear in the film express the sense of belonging, independence, authority, mission, identity, self-esteem, and self-esteem in order to reveal the occupation and role of the characters. And authority and mission. I

색인어 : 웨스 앤더슨,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유니폼, 이미지

Key word : Wes Anderson, <Moonrise Kingdom>, <Grand Budapest Hotel>, Uniform, Image

<http://dx.doi.org/10.9728/dcs.2017.18.7.130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1 October 2017; Revised 20 November 2017

Accepted 25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Mijeong Kwon, Samseok Ryang

Tel: +82-10-4708-6495

E-mail: muse@pusan.ac.kr

1. 문제의 제기

영화에는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음악, 춤, 미술, 의상 등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영화에서 의상은 또 다른 방법에 의해 영화에 대한 공감도와 몰입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한정된 스크린 속에서 특정한 캐릭터를 보여 주어야 하는 영화에서 의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화 속에서 의상은 주인공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시각적인 도구가 되고, 영화 전체의 분위기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화에서 각 인물이 등장할 때 관객들은 영화를 볼 때 그 인물이 입을 옷을 통해 인물의 성격, 취향, 직업, 처해진 상황, 시대적 배경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입을 의상의 변화는 그 인물의 심리적, 상황적, 경제적 변화 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영화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입었던 의상이 캐릭터와 잘 부합할 경우 그 자체가 스타일이 되어 그 영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1969-현재)은 '미학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영화감독으로 그의 영화 작품들은 폐선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색채의 사용, 의도적인 화면 구성과 키덜트이다. 그는 영화 속에서 다양한 색상, 특히 파스텔 톤의 색상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영화가 동화적인 느낌을 준다. 이와 더불어 좌우 대칭 구도, 영화 속 인물들의 프로필 쇼트 등의 1점 투시 촬영 기법, 수평·수직 등 평면적 화면 등의 의도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만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영화에 아이들이 항상 등장하는 것과 함께 그의 영화들은 키덜트적인 면모를 보인다. 웨스 앤더슨이 미학적 요소를 매우 중요시하고 그 또한 영화계에서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만큼,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의상들은 영화속에서 그의 '미학적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들에서 나타난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그의 총 8편의 장편 영화들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요소가 있는데, 이는 영화 의상으로서 항상 유니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의 첫 번째 작품인 <바틀 로켓(1996)>에서는 어리숙한 삼인조 도둑들이 노란색 유니폼을, <로얄 테넌바움(2001)>에서는 아빠와 두 아들은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2004)>에서는 지소와 그의 부하들이 빨간색 모자와 파란색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등장한다. <문라이즈 킹덤(2012)>에서는 카키 스카우트 단원들이 카키색의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니폼이 등장하나 호텔 유니폼이 주된 의상이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에 비해 유니폼이 등장하는 장면이 적지만, 나머지 영화들에서도 교복, 은행 직원들의 유니폼 등 여러 종류의 유니폼들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웨스 앤더슨 영화 작품 속에 영화 의상으로 활용된 유니폼의 조형적인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내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 속 영화 의상인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봄과 아울러 영화 속 의상으로서 유니폼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자는 2000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 중 <문라이즈 킹덤(201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의 두 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 연구로는 웨스 앤더슨과 유니폼 관련 논문들, 웨스 앤더슨과 그의 작품들에 출연한 배우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잡지와 인터넷 기사 등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웨스 앤더슨 컬렉션 북 「The Wes Anderson Collection(Wes Anderson & Maxi Anderson & Matt Zoller Seitz)」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웨스 앤더슨 컬렉션(Matt Zoller Seitz) (조동섭 역)을 참고하였다. 이와 함께 웨스 앤더슨 영화 작품 속의 유니폼들을 분석하기 위해 작품들의 DVD 캡처본을 이용하였다. <문라이즈 킹덤> 속 유니폼이 잘 나타난 51개의 캡처 장면 중 디테일에 집중된 4개의 장면과 주된 유니폼이 아닌 유니폼이 등장한 6개의 장면은 제외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경우 유니폼이 등장한 장면 중 중복된 9개의 장면과 디테일에 집중된 7개 장면을 제외한 총 49개의 DVD 캡처본을 실증적 자료로 사용했다.

II. 이론적 배경

2-1 유니폼의 의미와 역할

의복(복식)은 기본적으로는 신체 보호와 실용적인 목적이 있으나, 각자의 성격, 취향, 직업, 지위, 가치관, 처해진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 여러 형태의 복식 중 특히 유니폼은 사회적 역할이 큰 상징적 복식이다. 특정의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는데, 이에 따라 유니폼은 집단의 소속감, 직업, 지위, 계급, 권위, 일체성 등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이 된다.

조셉(Joseph)과 알렉스(Alex)는 유니폼의 기능과 관련해, 첫째, 집단 구성원을 상징한다. 둘째, 어떤 사람의 현재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역할에 대한 정보는 감춘다. 셋째, 한 개인을 집단 구성원으로 증명함으로써 집단을 대표하게 되어 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과되며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합법화한다. 넷째, 개인이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므로 각자의 개성을 억제하며 조직이 개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상징한다. 다섯째, 일체와 구분을 기초로 소속이나 단결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집단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착용자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더불어 유니폼 착용 시 소속감을 갖게 되며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랭그너(Langner)는 유니폼이 개인 또는 집단을 과시하고, 그 권위를 통치 권력에 전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같은 유니폼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서 유니폼이 그 집단에 대한 정체성, 소속감, 사명감, 권위를 부여하고, 타집단에게는 그 집단에

대한 부러움을 환기시킨다.

유니폼은 조형적으로 공공성,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유니폼은 어떤 한 집단을 상징해 그 집단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전달되므로 일정 부분 객관적,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둘째, 유니폼은 사회적 역할이 큰 복식의 형태로 상징성이 요구된다. 셋째, 유니폼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복식으로서의 1차적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업무를 위해 장시간 착용되는 복식이므로 효율성과 편리성이 요구되며, 특히 소방관이나 잠수부 등 유니폼이 중요한 직업의 경우 기능성이 더욱 강조된다. 넷째, 유니폼에도 심미성이 요구되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른 복식들과의 차이점이다. 오늘날에는 의상에서 신체 보호와 실용적 목적보다 심미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의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니폼은 착용 목적, 직종, 디자인의 개념상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처음으로 유니폼의 종류를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셉과 알렉스는 법적인 허가에 따른 정형화(formal)된 유니폼과 표준화된 드레스 코드에 따른 준정형화(quasi:유사)된 유니폼으로 구분하였다. 정형화된 유니폼은 군복, 경찰복 등으로 한 조직이나 단체의 관리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준수되는데, 위계질서와 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장식을 통해 계급을 표시하기도 한다. 준정형화 된 유니폼은 클래식 혹은 비즈니스 슈트 등으로 의복 스타일에는 통일성이 있으나 디테일적인 요소는 변화가 가능한 유니폼의 형태로 정의했다[2]. 이경화는 유니폼의 종류를 의식복, 작업복, 단체복으로 대별하고 세부적인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3].

2-2 앤더슨의 영화 속에 표현된 패션

본고의 연구대상인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은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로 ‘앤더슨 터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추구하는 앤더슨의 영화들은 강렬하고 시각적인 색채를 이용해 화려한 미적 감각을 표출한다. 작은 소품 하나부터 세트, 의상, 조명, 구도, 동선, 카메라의 각도와 움직임 모두 고려해 아름다운 색채와 함께 의도적으로 공간을 구성해 영화의 ‘미학적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영화가 종합 예술이라는 점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는 이 모두를 고려해 영화를 실제로 촬영하기 전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사전 제작을 한다.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는 프레임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토리보드와 달리 실제로 편집해서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 특히 여러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작업에서 아주 유용한데, 여기서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가 지도 역할을 해 타이밍과 전체적인 영화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화 속 주인공들의 상황적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각각 주인공의 의상과 화면 속 주된 색상의 변화를 통해 제시한다. 의상의 색상은 영화 속 미술의 색상과 융합되어 그의 영화들은 색채를

통해 영상의 비주얼을 지배한다.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색채의 향연은 관객들에게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이에 따라 웨스 앤더슨은 영화계 최고 비주얼리스트로 손꼽힌다. 그는 매 영화마다 컬러 팔레트를 정해두고 의도적으로 그 색들을 사용한다. 각각의 영화마다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 있는데, 이는 그 영화를 떠올렸을 때 바로 연상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주인공의 감정 혹은 심리 변화의 상의 색상의 변화를 통해 드러낸다. ‘색채 심리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 변화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달라지는데, 웨스 앤더슨은 이를 영화 속에서 잘 활용한다. 영화 <로얄 테넨바움>에서 채즈 테넨바움과 그의 두 아들이 항상 빨간색 아디다스 유로파 트레이닝복을 고집하다가, 아버지 로얄 테넨바움의 장례식에서만 검정색 아디다스 유로파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그림 1).



그림 1. <로얄 테넨바움>에 나온 검정색 트레이닝복
Fig. 1. Black training suit shown in <Royal Tennenbaum>

앤더슨의 패셔너블한 의상과 색상의 활용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패션계와 관계를 맺어왔다. 그의 팬임을 자칭한 미우치아 프라다는 ‘프라다: 캔디(2013)’ 광고와 프라다 패션 필름 ‘카스텔로 카발칸티(2013)’ 연출을 그에게 의뢰했고, ‘프라다: 캔디(2013)’ 광고는 그 해 가장 성공적인 광고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특히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두고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두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Prada)와 펜디(Fendi)가 경쟁하기도 했다. 프라다는 조플린 역의 윌럼 더포를 위해 가죽 코트를 제작했고, 펜디는 마담 D. 역의 틸다 스윈튼을 위해 오스트리아 상징주의 화가 클림트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1930년대 스타일의 검정색 밍크 장식의 벨벳 코트를 디자인했다. 또 프라다는 <그랜드 부다페스트>가 개막작으로 초청되었던 2014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 기간 동안 프라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해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프라다가 디자인한 여행용 짐 가방을 비롯한 자사 제품들을 그대로 전시하고, 2014 Women’s F/W 컬렉션과 2015 Men’s S/S 컬렉션에

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연상시키는 의상들을 선보이기도 했다(그림 2). 최근에는 세계적인 SPA 패션 브랜드인 H&M을 위한 3분 52초 분량의 단편 영화 <Come Together>을 제작하기도 했다.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H&M의 광고로 그와 여러 편 작업했던 애드리언 브로디가 역무원으로 출연하는데, 여기서도 유니폼이 의상으로 등장한다.



그림 2.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연상시키는 컬렉션 의상
 Fig. 2. Collection costume reminiscent in movie <Grand Budapest Hotel>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 중 유난히 독특한 캐릭터와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던 것 중 하나로 2001년 작 <로얄 테넌바움>이 있다. 무려 14년이 지난 후 추억, 노스텔지어가 트렌드였던 2015 F/W 시즌 Gucci, Lacoste, Bally 등의 브랜드에서는 <로얄 테넌바움> 속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했던 마고 테넌바움과 그녀의 오빠 리치 테넌바움을 런웨이에서 재현해 내었다(<사진 11> 참조). 마고 테넌바움은 천재 극작가로 어린 시절부터 라코스테 줄무늬 피케 티셔츠에 빈티지 모피 코트를 고수하며 그녀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오빠 리치 테넌바움 역시 천재 테니스 선수로 입양된 여동생 마고를 짝사랑하나 마고의 결혼으로 충격을 받아 테니스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인물로 나온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입어 온 테니스복과 스포츠 헤어밴드는 여전히 고집하지만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덩수룩한 수염과 함께 클래식한 코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어린 시절의 재능과 현재의 방황하는 상황을 드러내며 그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III. 영화속에 등장한 유니폼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영화 <문라이즈 킹덤>의 주요 의상인 스카우트 단복과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요 의상인 호텔 유니폼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라이즈 킹덤> 속 카키 스카우트는 가상의 스카우트 단체이다[4].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스카우트 운동 또는 스카우팅(scouting)은 젊은이들의 육체, 정신, 영혼 발달을 지원하여 사회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 청소년 운동 단체이다[5].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 스카우트이다. 보이 스카우트 단복은 카키색의 셔츠와 쇼트 팬츠, 니 삭스를 신고 네커치프를 목에 매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6]. <문라이즈 킹덤>에서 카키 스카우트의 단복은 보이 스카우트 단복을 기본으로 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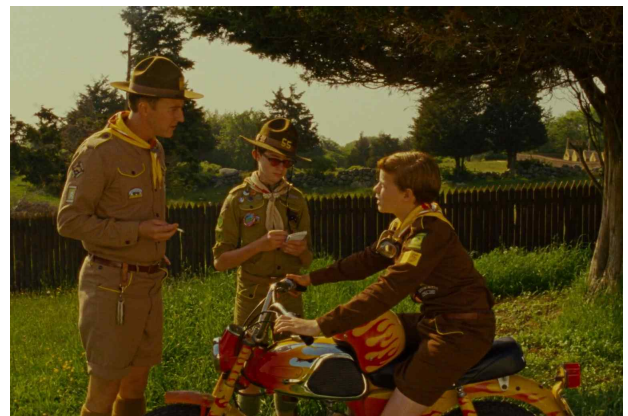


그림 3. <문라이즈 킹덤>에 나온 카키 스카우트 단복
 Fig. 3. Khaki Scout uniforms in <Moonrise Kingdom>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니폼이 등장하는데, 호텔 지배인인 구스타브와 로비 보이인 제로가 주인공이므로 호텔 유니폼이 주요 의상이다. 통상 같은 호텔 직원이라도 업무에 따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담당하는 프런트 직원, 짐을 나르는 포터, 호텔을 안내하는 보이, 객실 청소를 하는 메이드, 식당이나 바에서 일하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의 유니폼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진다. 서비스 업종인 만큼 다른 직종에 비해 소속 직원들의 이미지나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의상 디자이너 밀레나 카노네로(Milena Canonero)는 호텔 유니폼 제작에 1930년대 당시의 유니폼 모습을 이용했는데, 특히 고급스러운 호텔의 직원 유니폼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림 4에서 1930년대 로비 보이의 유니폼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로비 보이 역의 제로가 착용했던 유니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1930년대 호텔 보이 유니폼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온 유니폼 비교[7]

Fig. 4. Compare to uniforms from 1930's and Hotel Boy uniforms in <Grand Budapest Hotel>

의상은 시각적 도구로 쉽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의 의상은 신체의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니폼이 영화 의상으로서 나타나면 영화 속 의상의 상징적인 역할은 더 커지게 된다.

IV. 영화 속에 등장한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

4-1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 나타난 유니폼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둘만의 아지트를 찾아 사라진 어린 소년-소녀 커플을 찾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사고로 가족을 잃고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카키 스카우트의 문제아 샘과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친구라고는 라디오와 책, 고양이 밖에 없는 외톨이 수지가 그 주인공이다. 1년 전 교회에서 단체로 연극을 보다가 몰래 빠져 나온 샘은 까마귀 분장을 한 수지에게 한 눈에 반하게 되고, 그 후로 둘은 펜팔을 통해 상처와 외로움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진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소울 메이트이자 연인이 된 샘과 수지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아지트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 각자 약속 장소로 향한다. 몇 시간 후 샘과 수지의 실종 사건이 알려지자 뉴 펜잔스 섬은 발각 뒤집힌다. 수지의 부모님과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들의 행방을 찾아 나서며 영화가 전개된다[8].

<문라이즈 킹덤>의 의상 디자이너 카시아 윌리카-마이몬(Kasia Walicka-Maimone)은 영화 속 두 주인공 수지와 샘의 의상 제작에 있어 스카우트, 60년대, 사진, 추억, 스냅샷 등이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의상으로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싶었냐는 질문에 시대에 따른 의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싶었

다고 답하며, 의상의 형태는 배우가 피팅을 하면서 마무리되나 그 형태가 캐릭터의 삶이 녹아 들어있는 의상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이 카키 스카우트 단원이기 때문에 영화에는 스카우트 단복이 계속 등장한다. 가상의 스카우트이나 가장 널리 알려진 보이 스카우트 단복을 기본으로 하였다. 베이지, 카키, 브라운 색상의 면 소재 긴팔 셔츠와 반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니 삭스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사각형 실루엣을 띤다. 그 중에서도 바스트, 웨이스트, 힙이 강조되지 않는 직선적인 형태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다. 노란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셔츠에 각종 훈장과 배지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다. 단복은 같은 색상의 톤을 기본으로 했으나, 캐릭터 각각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주는 한편 개리슨 캡, 캠페인 햇, 베레모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매치시켰다(그림 5). 주된 의상은 아니나 샤프 소장 역의 브루스 윌리스의 의상으로 또 다른 유니폼인 경찰관 유니폼이 등장한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샘이 샤프 소장과 함께 살게 되면서 경찰관 유니폼을 입은 샘의 모습도 등장한다(그림 6).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나타난 스카우트 단복과 경찰관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그림 5. <문라이즈 킹덤>에 나온 유니폼
Fig. 5. Uniforms in <Moonrise Kingdom>



그림 6. <문라이즈 킹덤>에 나온 경찰관 유니폼
Fig. 6. Policeman uniforms in <Moonrise Kingdom>

표 1. <문라이즈 킹덤>에 나온 유니폼들의 조형적 특징

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niforms in <Moonrise Kingdom>

종류 구분	카키 스카우트 단복	경찰관 제복
아이템	긴팔 셔츠+반바지+스카프 +니 삭스	반팔 셔츠+팬츠+넥타이 +캡 모자
형태	사각형 실루엣 > 스트레이트 실루엣	
소재	면 소재: 긴팔 셔츠, 반바지, 스카프 아크릴+스트레치 나일론 소재: 니 삭스	면 소재: 반팔 셔츠, 캡 모자 폴리에스터+면 소재: 팬츠 폴리에스터 소재: 넥타이
색상	전체적인 의상 색상: 베이지, 라운, 카키 노란색: 스카프	흰색: 반팔 셔츠, 캡 모자, 팬츠에 사용된 트리밍 장식 남색: 팬츠, 넥타이
디테일	상의에 각종 훈장과 배지, 견장을 부착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개리스팬츠를 가죽 벨트와 함께 착용 캡, 캠페인 햇, 베레모 등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모자 착용	상의에 훈장과 배지, 견장을 부착 팬츠를 가죽 벨트와 함께 착용 팬츠에 흰색 트리밍 장식 캡의 문구 'ISLAND POLICE'
대표 이미지		

4-2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타난 유니폼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랜드 부다페스트’라는 유명 호텔의 전설적 관리인 구스타브의 이야기이다. 주브로프스카(Zubrowka)라는 가상의 공화국에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며 로비 보이인 제로가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모험담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27년 어느 날, 세계 최고 부호 마담 D.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살인을 당한다. 그녀가 유언을 통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을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이자 연인 구스타브 앞으로 남기자, 그녀의 아들 드리트리는 어머니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구스타브를 지목한다. 영화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비롯한 그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드미트리야가 킬러 조플링을 고용하고 이에 맞서 구스타브가 로비 보이 제로와 함께 누명을 벗기 위해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의상 디자이너 밀레나 카노네로(Milena Canonero)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타마라 렘피카(Tamara de Lempicka), 조지 그로츠(George Grosz) 등 유명 화가의 그림과 만 레이(Man Ray), 조지 허렐(George Hurrell) 등 사진작가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얻어 주연배우 의상을 고안했는데, 이 영화로 네 번째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았다[9].

영화 속에는 호텔 유니폼, 죄수복, 수도복, 제빵사복 등 다양한 형태의 유니폼이 등장하는데, 그 중 주된 의상은 호

텔 유니폼이다. 호텔 직원들의 유니폼은 보라색의 펠트 소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사각형 형태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나, 직원들의 계급에 따라 의상이 달라진다. 지배인 구스타브가 보라색 펠트 소재의 테일 코트에 흰색 셔츠, 연보라색의 베스트와 슈트 팬츠를 착용하고 보라색의 보타이를 착용하는데 반해 로비 보이 역의 제로는 보라색 펠트 소재의 상·하의에 ‘LOBBY BOY’라는 문구가 적힌 보라색의 필박스 햇을 착용했다(그림 7). 의상 디자이너 밀레나 카노네로는 특히 구스타브가 착용하는 의상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우아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영화 후반부 위기에 처한 구스타브를 돕기 위해 십자열쇠협회 컨시어지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착용한 옷은 모두 호텔 유니폼이나 나라마다 유니폼의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장식적 요소를 추가하였다(그림 8). ‘십자열쇠협회’는 실제로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세계 컨시어지 협회 소속 황금 열쇠 멤버들이다.



그림 7.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온 유니폼
Fig. 7. Uniforms in <Grand Budapest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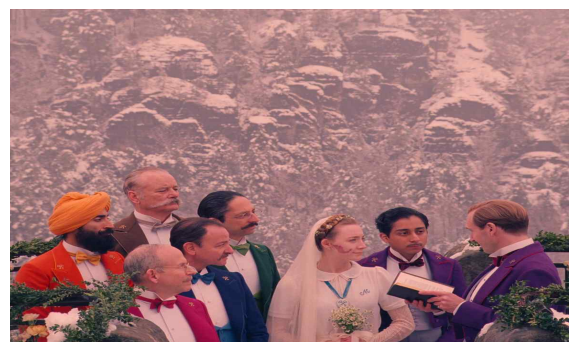


그림 8.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온 십자열쇠회원들의 유니폼
Fig. 8. Cross Key Members' Uniforms in <Grand Budapest Hotel>

호텔 유니폼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니폼은 구스타브가 마담 D.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교도소에 갈 때 등장하는 죄수복이다. 수감된 죄수들이 모두 같은 죄수복을 착용하는

데, 사각형 형태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긴팔 셔츠와 팬츠, 필박스 햇 등을 착용한다. 이 모든 아이템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구스타브와 제로는 구스타브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인물이었던 서지 X를 찾아 수도원으로 향한다. 잠깐 등장하는 수도복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착용되어지는 유니폼인데 다른 유니폼들과 구별된다. 아이보리 색의 후드가 연결된 튜닉 형태로 종교적인 복식에 걸맞게 장식적 요소는 없으나, 허리띠로 바늘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고대부터 이어져 온 복식의 특성상 봉제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진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의 트라페즈 실루엣을 띤다[10].

주인공들이 착용하는 유니폼 중 마지막은 'MENDL'S'라는 빵집의 제빵사 유니폼이다. 드미트리야가 빼앗고자 하는 '사과를 든 소년'을 제로의 약혼녀인 아가사에게 맡길 것을 알고 그녀에게도 위협이 가해지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구스타브와 제로가 호텔에 잠입하기 위해 제빵사 유니폼을 착용했다. 제빵사 유니폼은 아가사가 MENDL'S의 제빵사이기 때문에 영화가 전개되면서 유니폼 뿐 아니라 케이크 패키지도 영화 속에 계속해 등장한다. 제로가 수감 중인 구스타브의 면회를 갈 때 가져간 선물로, 구스타브의 탈옥을 도울 도구를 전달하기 위해 위장한 물건으로, 또 나중에 제로와 구스타브가 호텔에 잠입을 가능하게 해 준 물건으로 MENDL'S의 케이크가 계속해 등장한다. 하늘색의 제빵사 유니폼은 MENDL'S의 분홍색 케이크 패키지와 함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상징적 색상이기도 한데, 흰색의 긴팔 셔츠, 팬츠와 하늘색 코트 셔츠 형태의 가운, 캡 모자로 구성된다. 그 밖에 군인들의 군복과 재판관들의 재판복 등의 유니폼이 영화 의상으로서 등장한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된 의상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유니폼과 그 외 영화에 등장한 유니폼들의 조형적 특징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온 유니폼들의 조형적 특징
Table 2.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niforms in <Grand Budapest Hotel>

종류 구분	호텔 유니폼	죄수복	수도복	MENDL'S 제빵사 유니폼
아이템	구스타브(지배인): 긴팔 셔츠+베스트+수트 팬츠+테일 코트+보타이 제로(로비 보이): 자켓+필박스 햇	긴팔 셔츠+팬츠	튜닉	긴팔 셔츠+팬츠+가운(코트 셔츠)+캡 모자
형태	사각형 실루엣 > 스트레이트 실루엣	삼각형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사각형 실루엣 > 스트레이트 실루엣
소재	펠트 소재:테일 코트, 자켓, 팬츠, 필박스 햇 레이온+폴리에스터 소재:베스트, 수트 팬츠 면+폴리에스터 소재:긴팔 셔츠 벨벳 소재: 보타이	면소재	펠트 소재	면 소재

종류 구분	호텔 유니폼	죄수복	수도복	MENDL'S 제빵사 유니폼
색상	보라색: 테일 코트, 자켓, 팬츠, 필박스 햇 연보라색: 베스트, 수트 팬츠 흰색: 긴팔 셔츠 빨간색: 보라, 연보라색, 의상에 사용된 트리밍 장식(버건디: 보타이)	아이보리 색의 바탕에 푸른 빛을 띠는 회색 스트라이프	아이보리 색상	하늘색: 가운, 캡 모자 흰색: 긴팔 셔츠, 팬츠
디테일	테일 코트, 자켓, 수트 팬츠, 팬츠에 사용된 트리밍 장식 구스타브: 보타이, 상의에 부착된 배지 제로: 필박스 햇의 'LOBBY BOY' 문구, 신발의 빨간색 스웨이드 소재 장식	모든 아이템에 스트라이프 패턴 사용	후드가 연결된 튜닉 바늘을 허리로 사용	가운과 캡에 적힌 'MENDL'S' 문구
대표 이미지				

V. 영화 속에 나타난 유니폼의 내적 의미

영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등장한 유니폼이 갖는 내적 가치는 소속감, 권위, 사명감, 동질성, 정체성, 자부심 등이다. 이 중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치는 소속감, 독립성과 권위, 사명감이다.

5-1 소속감

첫째, 영화 <문라이즈 킹덤>의 카키 스카우트 단복과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호텔 유니폼은 각각 카키 스카우트단의 구성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직원이라는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했다. <문라이즈 킹덤>의 주인공 샘은 처음에 다른 카키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샘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지자 다른 카키 스카우트 단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내보인다. 그러나 이후 한 스카우트 대원이 다른 대원들에게 '샘에게 한 번도 잘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며 샘과 수지의 사랑을 위해 도와주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카키 스카우트 동료로서"이다. 이것은 같은 카키 스카우트라는 소속감에 의한 일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샘을 돕는 기제가 된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직원임을 강조하는 말들이 자주 나온다. 구스타브가 누명을 쓰고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십자열쇠회원의 컨시어지들도 역시 같은 십자열쇠회원이라는 소속감에서 그를 돕는다. 다양한 국적의 회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유니폼의 색상을 달리하거나 국가의 특성에 맞게 터번을 착용하는

등 디테일을 달리 했으나, 전체적인 유니폼의 형태를 동일 시함으로써 동료 의식을 제고했다.

5-2 독립성과 권위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카키 스카우트 단원으로 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호텔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니폼을 통해 표현하며 그들의 자부심과 나아가 독립성과 권위를 드러냈다. <문라이즈 킹덤>에서 랜디 대장은 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대원들에게 샘을 찾아서 안전하게 캠프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이것이 그냥 수색대가 아니라 최고의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면서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대원들의 행동에 대표성을 부여한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지배인 구스타브는 그 호텔이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 호텔의 지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위를 드러낸다. 대표적인 것이 “호텔을 대표하여 사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이다. 구스타브가 화려함과 권위의 상징에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의 수트 유니폼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죄수복으로 바뀌는데, 이 때 죄수복 상의와 하의가 너무 짧아 소매와 발목이 다 드러나고 가죽 구두에서 나막신을 신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여기서는 의상을 통해 그의 권위가 추락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또, 영화가 전개되면서 아가사가 중요 인물임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십자열쇠협회 도자기 펜던트가 등장한다. 이 펜던트는 특정 길드에 가입된 호텔리어만 가질 수 있는데, 구스타브는 아가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자신을 대신해 펜던트를 그녀에게 맡긴다. 여기서 펜던트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상징물로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5-3 사명감

유니폼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직업의식, 사명감을 일깨우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랜디 대장이 복장 점검을 하는 중 한 대원에게 ‘양말이 내려왔고 상의 자락이 나와 있으며 바지가 제대로 다림질 되지 않았다.’며 복장 불량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카키 스카우트 단원으로서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화의 후반부, 샘을 돕기 위해 뉴 펜잔스의 카키 스카우트 대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피어스 사령관은 랜디 대장에게 그가 카키 스카우트가 맞는지 되물으며,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지휘관을 박탈한다며 상의에 부착되어있던 스카우트 상징 배지를 떼어버린다. 스카우트 단장으로서 스카우트 단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특히 호텔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

는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지배인 구스타브가 제로에게 로비 보이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로비 보이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항상 시야에 있는 존재이며, 고객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고객의 요구를 고객보다 먼저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 입이 돌처럼 무거워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구스타브가 감옥에 수감되어 호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호텔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한다. 자신이 누명을 벗을 때까지, 호텔의 명성이 직원들에게 달려 있으니 항상 호텔의 청결을 유지할 것과 작은 실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한다.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문라이즈 킹덤>의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호텔 직원들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단체 혹은 조직으로부터의 소속감과 나아가 권위를 가지며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사명감을 드러낸다.

VI 결 론

본고에서는 유니폼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실례를 분석함으로써 양자간의 인과성이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표현된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과 내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영화 속에서 등장한 유니폼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따른 실제 유니폼들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영화 속 상황이나 미학적인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속 유니폼은 사각형 실루엣으로 각각 일반적인 보이 스카우트 단복과 호텔 지배인, 직원들의 유니폼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보이 스카우트의 단복과 같이 셔츠와 쇼트 팬츠, 니 삭스, 스카프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카키 스카우트에서의 문제아 주인공 샘에게는 보이 스카우트 대원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모자 대신 너구리 꼬리 모자를 매치했다. 어린 소년들이 중심인 스카우트이며, 사랑스럽고 동화 같은 영화 전체 분위기에 적합하게 스카우트 단원들의 의상에 캐릭터 곰 모양의 장식 등 다소 지나칠 정도의 각종 훈장과 배지, 견장들을 부착해 카키 스카우트 단원들의 유니폼을 완성하였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 호텔 유니폼보다 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사무적인 느낌을 덜고 영화 의상에 적합하게 변형시켰다. 일반적으로 호텔 유니폼의 경우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을 이용하는데 반해, 영화에서는 채도가 높은 보라색을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채도가 높은 빨간색의 트리밍 장식으로 디테일을 표현했다. 호텔 유니폼 다

음으로 자주 등장한 MENDL'S 제빵사 유니폼은 파스텔 톤의 하늘색으로, MENDL'S 케이크 패키지로 사용된 파스텔 톤의 분홍색과 함께 이 영화를 상징하는 색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요리사의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제빵사의 유니폼은 위생과 청결을 대표하는 흰색이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 특유의 키덜트적인 감성과 색상을 통한 미적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 유니폼의 색상을 흰색 대신 파스텔 톤의 하늘색으로 정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유니폼은 단순히 인물들의 직업이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소속감, 권위, 독립성, 일체성, 사명감 등의 내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이 단복을 입을으로써 카키 스카우트의 소속감을 부각시켰다. 주인공 샘이 카키 스카우트 캠프에서 사라지자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다른 대원들이 동료로서 샘과 수지를 도와 주자는 장면에서 같은 카키 스카우트 유니폼을 입은 대원들 간의 동일체 의식과 소속감이 부각되었다. 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유니폼이 호텔 직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컸는데, 유명한 호텔의 직원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직업의식을 강화시켰다. 지배인 구스타브는 다른 직원들에게 최고의 호텔로 평가받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직원으로서 항상 단정하고 완벽하게 유니폼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전술한 내용을 통해 본 바와 같이 두 영화 속에서 유니폼은 옷이라는 1차적인 역할 이외에 영화의 전개와 의미 전달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영화적 기호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호는 앤더슨의 후속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유니폼이 갖는 의미를 주시하게 한다. 본 분석을 통해 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속 의상들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이 상징이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영화 의상에 관한 후속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도 부산대학교 기본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K. H. Lee, *Understanding the uniform*, Seoul: Kyungchoonsa, p. 9, 2014.
 [2] K. H. Lee, *Understanding the uniform*, Seoul: Kyungchoonsa, p. 23, 2014.

- [3] K. H. Lee, *Understanding the uniform*, Seoul: Kyungchoonsa, p. 28, 2014.
 [4] Scout Federation <http://ko.wikipedia.org/wiki/World>
 [5] Scout Movement British Army chief Robert Bayon Powell was fighting and believing that the spirit of the British soldiers was weak. In order to raise the spirit, co-operation and leadership for the boys, It was the start of the 1st Scout Camp. Today, it has grown to become a world-class youth organization for healthy mind and body training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y citizenship to youth around the world and outdoor activities. <http://ko.wikipedia.org/wiki/>
 [6] Boy Scout suit, "Fashion expert dictionar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9591&cid=50345&categoryId=50345>
 [7] www.instyle.com/news/immerse-yourself-laurier/photos+ch%C3%A2teau+laurierworld-wes-andersons-grand-budapest-hotel+staff/6681284/story.html
 [8] Naver movie, "Moonrise Kingdom",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90537#>
 [9] K. O. Jin, *Design fashion*, film, Seoul: Sanjini, p. 87, 2015.
 [10] The Trapeze Silhouette is a trapezoidal shape, a form that widens to the Ham line.



차지현(Jihyun Cha)

2007년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이학학사)

2017년: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2017년 현재: 프리랜스로 활동 중



권미정(Mijeong Kwon)

1984년 :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1994년 :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박사-복식미학)

2011년-2014년: 한국이류학회 조직이사

2016- 현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편집위원

2017년 현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복식미학, 패션과 예술, 민속의상



양삼석(Samseok Ryang)

1986년 :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1994년 :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정치이론 및 정치사상)

2009년-2011년: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센터장

2016년-2016년: 대한정치학회 회장

2017년 현재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관심분야 : 정치이론(정치사상 및 철학), 음악과 정치, 이미지 메이킹과 대중조작, 글로벌 리더십